

#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

## -도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심현남\*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를 넘은 현대의 관광환경구축이란 빈 땅에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있던 것을 정리, 통합하고, 새로운 평형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 즉 본래 있던 자원의 질서를 재편성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걷기열풍을 몰고 온 제주도 올레길 역시 재생과 전용(轉用), 복합과 제휴, 연출과 번역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감흥을 이끌어 내는 이른바 탈구축방식(大原一興, 2008)을 이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올레길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적인 산책로가 아니라 구석구석에 기존하던 길들을 연결시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곳곳에 숨은 절경을 볼 수 있게 관광과 걷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는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웰빙(wellbeing), 에코(eco), 슬로우푸드(slow food), 아날로그(analog) 등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트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자연을 변화시키거나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공생한다는 점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올레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간세다리'를 그 주제로 내세우고 있어 지역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면은 길 위에 자연, 역사, 문화, 종교라는 콘텐츠가 얹혀 있는 세계적 도보관광루트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중세스러움과 낭만을 테마로 하는 독일의 로맨틱가도(Romantic Road) 모두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조되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북 안동시를 대표하는 정신문화라는 고유성을 적극 이용하여 기존탐방로와 차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안동시 내 역사자원으로써 가치가 높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겸비한 문화자원을 새로운 체험방식을 통해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발현시켜 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에 두었다. 동시에, 길이 지나가는 곳곳에 숨어 있는 설화와 스토리를 찾아 자연 그대로의 멋진 아니라 경관, 인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안동유교문화의 대표자원이라 할 수 있는 퇴계의 도산서원을 포함하여 유교문화의 발흥지로서 지역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일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대상지 내 탐방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선형의 탐방로로 연결시켜 새로운 형태의 체험방식을 제안해 보았다.

## II. 탐방로 노선 계획

### 1. 대상지 자원 분석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조성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여 방문객이 장소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장소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수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장소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를 자원화하는 과정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생태적 자원 등을 보존하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인 안동시 도산면 일대는 생태적 자원보유에 비해 역사와 문화적 측면의 자원이 많다는 것이 강점이다. 문화자원은 건축물, 장소, 유명인사, 축제 등과 같이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이는 문화자원이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습이나 특성, 그리고 음식 등 지역고유의 생활자원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고도 설명될 수 있다.

표 1. 자원분석의 기준

순번	구분	종류
1	역사경관자원	고건축
		바위글씨
2	자연경관자원	-
3	생활문화자원	전통음식
		무형자원

면밀한 분석을 위해 크게 역사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 생활 문화자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대상지 자원 선정

자원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파악한 후, 어떤 것을 대표 자원으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결정에 앞서, 분석한 자원 중 탐방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원을 최종적으로 선출했다.

첫째, 낙동강변을 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설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낙동강 중심선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 소재하는 자원을 선별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표는 생태적 가치보다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있기에, 탐방자원자체의 가치, 스토리텔링의 가치, 체험가치 등을 평가하여 탐방로에 이용될 최종 자원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 3. 개략 노선 선정

최종 선정된 자원을 연결하여 노선화하기에 앞서 개략노선을 구상하고 연구·분석 후 최적의 루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합리적 루트계획을 위해 세 가지 개략노선을 구상하고 이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루트를 선정하였다.

표 2. 최종 선정 자원

유형	수량	종류
역사경관자원 (고건축)	9	분강서원, 농암종택, 상덕사, 전교당, 도산서당, 애일당, 예안향교, 고산정, 청량산
역사경관자원 (바위글씨)	8	영지동천, 전평, 광현, 농암선생정대구장, 행암유원, 천연대, 행암대, 연고
자연경관자원	21	일출봉, 학소대인공폭포, 고리재, 골가사리, 쏘두들, 월명담, 고산, 서요대, 외병대, 내병대, 도룡담, 가송협, 부인당, 당나무, 오미산, 입칠봉, 단사, 갈선대, 섬촌, 천곡지, 천곡폭포
생활문화자원 및 무형자원	3	안동 토계리 진성이씨 퇴계 이황 종가의 접빈 음식, 부인당 옆 오미산 개인당, 비둘기 쓰인 도산서원 현판

표 3. 개략 노선 경로

총 길이	예상 소요 시간	이동방식	개략노선경로
약 17~19 km	약 5~7 시간	도보 (농로, 산길이용)	청량산-고산정-월명담-농암종택-애일당-단사마을-갈선대-내살미마을-도산서원-시사단-예안향교
		나룻배 (물길이용)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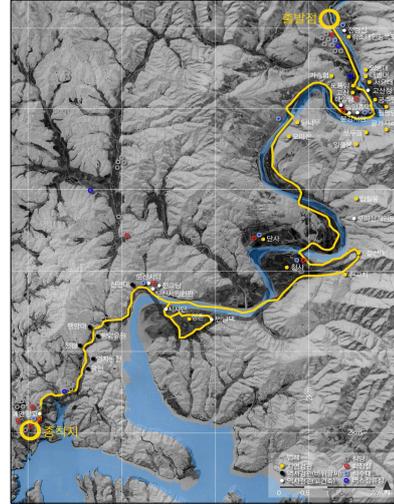


그림 1. 종합계획도

## 4. 개략노선 환경 분석

도상 검토를 통해 결정된 개략노선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답사하여 걷는데 알맞은 길을 찾아보았다.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는 새로운 시설 개발이 아닌 기존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중시하므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신규 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고 답사를 진행하였다.

## 5. 최종노선 선정

개략노선현장답사를 통해 새롭게 설계된 구간에 대한 장점과 단점, 구현가능성 등을 살펴본 후 최종노선을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 6. 계획 및 설계

최종 선정된 노선 중 현장탐방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거점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세 곳에 대한 세부공간 설계를 진행하였다. 고산정 구간, 농암종택 구간, 도산서원 구간에 대해 거점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발현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시설물 설치 및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보고자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낙동강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산면 일대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활용하여 탐방로를 계획하여 보았다. 청량산부터 예안향교까지 11개의 거점을 통과하며 약 7시간 동안 도보여행이 가능한 노선계획을 통하여 그 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발현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자원들도 기존과 다른 체험방식을 통해 새



그림 2. 탐방로 지도

롭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1. 탐방로 지도 제작

최종 선정된 탐방로 루트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에는 기본적인 노선뿐 아니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정보(교통시설, 숙박,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와 대상지의 경관을 효과

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인도하는 정보(걸음의 속도와 조망지점 등)를 추가하였다(그림 2 참조).

### 2. 탐방로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하여 관조자의 입장에서 탐방로를 경험하는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는 대상지의 역사와 이에 얽힌 이야기를 탐방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탐방 안내서가 될 수 있다.

## IV. 결론

도보열풍이 한창인 현재, 기존 탐방로의 경우 그 주제가 아름다운경관, 사색, 느리게 걷기 등 지역의 고유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성과 무관하게 조성된 탐방로들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조성될 또 다른 탐방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광환경 구축의 선행연구로서 향후에는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연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과 체계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용문헌

1. 김정현 역(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오하라 가즈오키. 아르케.